고용노동부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JUNE 2024
Vol.589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한 균형 찾기

인지심리학자·심리학교수
김경일



월간 내일

06 June 2024
Vol.589

Contents

2024.06

Vol.
589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한
균형 찾기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내일>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경성문화사

Special

고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전환의 방향

04
토픽 에세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룬다는 건
지금 행복하다는 것!

08
우리 사이
이해하고 슬기롭게 사용하는 연차휴가

10
어쩌다 우린
안전문화로 상생하는 근로자와 기업
SK텔레콤㈜

14
내일 인터뷰
일과 일상 사이, 자신만의 힐링을 찾아라
김경일 인지심리학자·심리학 교수

Move

우리 사회의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가는 가치있는 이야기

18
내일을 향한 도약
더 이상 도전이 두렵지 않아요
㈜커리어넷 신동훈 사원

20
고용 아카이브
구직·구인 고민, 체계적으로 해소하자

24
희망 브릿지
재취업을 발판 삼아 더 밝은 '내일'을 설계하다
㈜사조오양 금산공장 생산팀 임춘호 사원

26
일터애(愛)서
미조직 근로자의 고민 해결을 위한 공간

28
내일, 매일
미래의 핵심능력, 인공지능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다
이경전 인공지능 전문가

32
기자단이 간다
언제, 어디서든 인턴 생활 시작
인턴IN메타





Wave

오늘의 변화 속에서 펼쳐지는
유용한 정보와 내러티브

34
내일, 플레이스
한옥, 문화가 되다
서울 종로구 익선동

38
트렌드 프리뷰
나도 따라 살게! 디토소비

40
MOEL 뉴스

44
팩트폴니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싶은 몇 가지 것들

46
잡, MBTI
상담전문가

48
낼툰
오늘의 리듬 만들기 &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

50
WEVENT
초성퀴즈 & 독자 라운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룬다는 건 지금 행복하다는 것!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이 쓴 소설의 일부다.
미국인 사업가가 멕시코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휴가를 갔는데, 그곳에서 한 어부를 만났다.

"이것들을 잡는 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많이 안 걸렸수다."

"더 많이 잡으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아요?"

"뭐, 가족들 먹을 정도랑 친구들 나눠줄 정도만
있으면 되는걸."

"그럼 남는 시간에는 뭘 하시는데요?"

"낮잠도 자고, 아이들과 놀고, 아내와도 놀고,
뭐 그런다오. 저녁에는 마을을 어슬렁거리다
친구들 만나면 포도주도 한잔하고, 기타도 치고,
뭐 그러고 보내지요."

그 사업가는 낚시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돈을 모아 큰 배를 장만하면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이후 배를 몇 척 더 장만해 통조림 공장을
세우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다음은 어떻게 되우?"

"은퇴해서 낮잠도 자고, 아이들과 놀고,
아내와도 놀고, 뭐 그런다오.
저녁에는 마을을 어슬렁거리다
친구들 만나면 포도주도 한잔하고,
기타도 치고, 뭐 그러고 보내는 거죠."

"지금 내가 그러고 있잖소."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룬다는 건
일에 적절한 에너지를 쓰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균형은
나중이 아닌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
멕시코의 어부처럼 말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는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잠시라도 해야 할 일, 밀려드는 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를 듬뿍 충전하는
6월이 되기를 바라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정을 다해서 일하고 있을 당신이기에.



이해하고 슬기롭게 사용하는 연차휴가

높은 산을 등반할 때 쉬지 않고 정상까지 단숨에 오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일도 마찬가지로 삶과의 균형을 유지하며 적당한 휴식과 함께할 때 열심히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이번 노무사 칼럼에서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휴식권인 연차에 대해 다뤄본다.

글 김은주 노무사(테라노무사사무소)

연차란 무엇인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가이자 유급휴가이다. 이 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1]이다. 매 1년을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는 입사한 지 1년이 지나면(그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개가 법적으로 발생하며,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가 부여된다(최대 11일).

연차 발생 조건은 무엇일까?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를 평균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한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휴일이나 휴무일을 제외하고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들 중 출근한 날의 비율이 8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할 때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및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를 산정한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1개월 개근 시 1개가 부여된다.

1) 대구지법 2023가소216013, 선고일자 : 2023.7.4.



내 연차 개수를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을까?

입사한 지 만 1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15개의 연차가 생긴다. 예를 들어 2024.1.1.에 입사해 2024.12.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1개의 연차만 발생하지만 2025.1.1.까지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년을 초과하기에 15개의 연차가 더 발생한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한 경우, 11개가 발생하는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2년에 한 번씩 연차의 개수가 1개씩 늘어난다. 위와 동일하게 2024.1.1.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2024.1.1.~2024.12.31. **11개**
2025.1.1.~2025.12.31. **15개**
2026.1.1.~2026.12.31. **15개**
2027.1.1.~2027.12.31. **16개**

연차의 가산은 최대 10개이며 기본휴가 15개와 합산하여 25개를 한도까지 가능하다. 다만 별도의 회사 규정이 있거나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 간 합의한다면 법정 개수를 초과해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을까?

연차휴가는 본인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연차의 시기지정권이라고 부른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회사마다 연차 사용을 위한 절차가 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연차 희망



시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 후 규정대로 신청하면 된다.

연차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매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사용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다(다만 1년 차에 발생하는 최대 11개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업무가 바빠서 사용 기한 내에 휴가를 쓸 수 없었거나, 퇴직이나 해고 등으로 사용 기한 내에 근로관계 종료가 이뤄졌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 연차 미사용 수당은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돼야 하며, 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이다.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는 제외된다.

연차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근로자에게 발생한 권리이기에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가능하나 제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가의 사용(일 또는) 기간을 특정해 ▲휴가 사용 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연차의 사후 통보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회사 규정으로 연차의 사용 절차를 명시해 뒀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피치 못한 사정이 생겨 연락을 못 할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 사용일을 사전에 특정해 회사에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문화로 상생하는 근로자와 기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SK텔레콤㈜

그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지만 정작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안전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 대신 '나 먼저'라는 마음가짐으로 실천해야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SK텔레콤㈜의 안전보건혁신팀 장창록·임영빈·이종옥 매니저는 근로자의 안전 인식 개선을 통해 임직원과 협력사의 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글 김지연 **사진** 박충렬

Q 먼저 SK텔레콤㈜와 협력사의 안전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보건혁신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장 매니저 SK텔레콤㈜(이하 SK텔레콤)는 유·무선 통신의 한계를 넘어 미디어, 'AI 컴퍼니'로 도약해 나가고자 하는 국내 대표 이동통신 기업입니다. 이해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따라 안전보건 담당하에 안전보건기획팀, 안전보건혁신팀, 인프라(Infra)/커스터머(Customer)/엔터프라이즈(Enterprise) 안전보건팀 편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전보건혁신팀 소속으로, 사내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Q 고용노동부 주관 '제1회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서 통신업계 유일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는데, 어떤 부분에 높은 평가를 받으셨는지요?

임 매니저 협력사 임직원들의 경우 철탑 등 높은 곳이나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위험성평가와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AI 기반 기술을 활용해 안전장치와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사의 편의를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모바일 앱으로 제작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유해·위해 요인 제보를 받는 등 협력사 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경영 최고 책임자가 매달 수시로 협력사 근무 현장을 찾아 안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공모전,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젝트도 전개합니다. 이렇듯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직원 및 협력사와 꾸준히 소통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부분에 좋은 평가를 주신 것 같습니다.

Q SK텔레콤은 '중대재해 제로 목표와 5대 실천사항'으로 구성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매니저 SK텔레콤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이해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한다는 내용으로, 노사 모두가 안전보건의 주체로서 책임 있게 실천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 서명했습니다. 안전은 결국 의지이고 문화입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사옥 출입구나 작업 현장 도처에 붙여 놓아 자사와 협력사 임직원들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SK텔레콤이 사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임 매니저 사내 인트라넷에 안전보건 스토리라는 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하고 안전 관련 뉴스레터, QR코드 제보 이벤트,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 구성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에는 지난해 기준 임직원 및 협력사, 임직원 가족 3천여 명이 참여했는데, 임직원이 교육에서 배운 심폐소생술(CPR)로 응급처치를 실행해 표창을 받은 사례가 많이 들려 옵니다. 그럴 때면 사내 안전 담당자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협력사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하고 계신 활동들도 궁금합니다.

장 매니저 SK텔레콤은 협력사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임직원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이란?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해 스스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 해법을 마련해 실천하고, 정부가 안전보건에 관한 우수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참여 기업으로 대기업 224개소, 중소기업 3,373개소가 선정됐다.





안전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문화로
형성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작업 계획서, 위험성평가 등을 올립니다. 또한 안전 신문고를 운영해 현장의 위험, 어려움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30~40건 정도의 제보를 받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100%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통신사 작업 현장에 특화된 안전체험교육관(Safe T Center)을 운영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을 잘 준수한 우수업체에는 연말에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문화로 형성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SK텔레콤에 있어 '안전'이란 어떤 의미인지요?

이 매니저 강종렬 안전보건경영 최고 책임자가 항상 강조하시는 이야기인데 "안전에서만큼은 100-1은 99가 아니고 0"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흔아홉 번을 잘했어도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잘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의 작은 불편함이 익숙함으로 변하는 순간 안전은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Q 향후 SK텔레콤이 안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임 매니저 언제나처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AI 기반의 스마트 안전장치와 솔루션을 확대해 스마트 안전환경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안전체험교육관의 고도화와 감성 캠페인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 가고자 합니다. SK텔레콤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과 일상 사이, 자신만의 힐링을 찾아라

김경일 인지심리학자·심리학교수

**인생은 늘 예기치 못한 일들로 가득하다.
일터와 집, 모두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인생에서 번아웃이 오지 않게,
건강한 균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글 정자은 **사진** 김재욱

Q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이자 인지심리학자, 강연, 작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볼 수 있는데, 최근 주력 활동은 무엇인가요?

교내에서 하는 강의와 인지심리학 관련 연구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강의와 연구가 65%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 강연이 30%, 방송 출연이 5% 정도입니다.

Q 심리학 교수로서 학교에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해 수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것에 '의심'이라는 전제를 갖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는다, 너는 사람이다, 너는 죽는다. 그럼 그 인간이 정말 죽을까. 모든 걸 다 의심하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극단적 회유가 아니라, 이를 전제로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혁신이 나오기 때문이죠. 지금은 전화통화 없이도 음식 주문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 간단한 아이디어가 세상의 많은 부분을 바꿨습니다. '음식을 주문한다'라고 전제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음식점 사장이나 직원과 통화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제부터 다 바꿔서 생각하고 의심하고 반대로 해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다. 의심은 좋은 사고방식으로 이어지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Q 책이나 강연을 보면 '마음을 알고 나면 관계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신에 대해 알려면 '거리'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가까운 사람들과만 소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2~3년에 한 번씩 만나는 사이. 다양한 거리라는 건, 만나는 횟수와 빈도, 공유하는 가치 등이 포함된 개념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Q 다양한 거리가 있는 인간관계가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다양한 거리는 곧 주변에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재미있는 건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오히려 예상치 못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의 범주가 정해져 있을 수 있고요. 가까운 거리의 사람들만 만나다 보면, 유연한 자신, 변화하는 자신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거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Q 직장에서 근로자가 힘들어하는 부분은 일보다 인간관계가 많은데, 직장 내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적게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마찰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가 힘듭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이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를 잘 핸들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스트레스와 교통사고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는 줄여야 하고 없어야 하죠. 스트레스는 줄이거나 없앤다는 관점이 아니라,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현실적입니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큰 변화나 행복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작은 조치를 여러 번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만의 소소한 행복이나 활동을 찾는 것이죠.

스트레스는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Q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으로 힘들다는 사례가 많은데, 심리학자님은 어떻게 극복하는 편인가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예측합니다. 어떤 회사, 조직을 가더라도 갈등은 있을 수 있다는 걸요. 직장인들의 번아웃은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만 해서 오는 번아웃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일만 해서 지친다는 의미는, 일 외에 다른 일이 없음을 말합니다.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취미생활을 하면 좋습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를 배우거나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매거진 '월간 내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것이 늘 즐거울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예전에 일이 즐거웠다는 기억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은 인간이 지닌 독특한 행복감인 성장감입니다. 그 성장감은 일에 익숙하지 않을 때만 가질 수 있는 느낌이죠. 익숙한 일만 하고 변화를 거부하면 성장감은 사라져서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익숙한 일만 하려는 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업무에서 작은 도전을 두려워 마세요. 또 자신의 호기심이 담긴 취미를 찾아 자신만의 워라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도전이 두렵지 않아요

**도전과 변화는 누구에게나 어렵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뗀 청년에게는 더욱 그렇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실패가 두려운
청년에게 도움이 돼주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삶의 변화를 즐겁게 받아들이게 된 ㈜커리어넷의
신동훈 사원을 만나 본다.**

글 김지연 **사진** 오충근

㈜커리어넷 신동훈 사원



바다를 건너는 방법을 배우다

충남 천안에서 성장한 신동훈 사원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망망대해를 만난 기분이었다. 넓은 바다는 자유롭고 아름답지만 안전하게 건너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배와 노가 필요하다. 하지만 바다로 나갈 시기를 앞둔 신동훈 사원은 배를 띄우는 방법도, 노를 젓는 방법도 알지 못했다. 취업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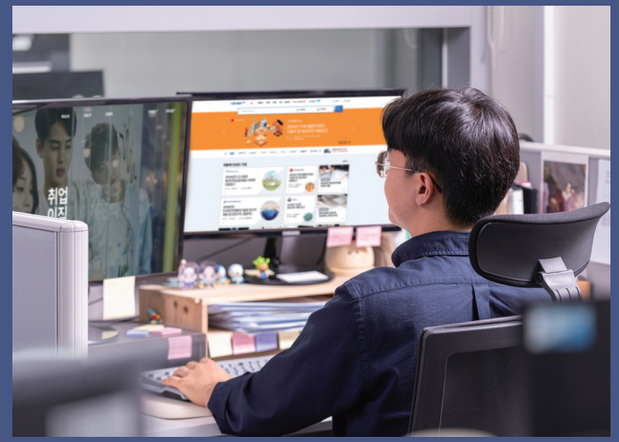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천안청년센터 이음에서 진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존재를 알게 됐고, 먼저 졸업한 여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 후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고 신동훈 사원 역시 도전하게 됐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각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직업 훈련 등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도약장려금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까지 연계되는 사업이다. 6개월간 진행된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가한 신동훈 사원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면접 코칭, 심리 상담, 액티비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들으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취업 준비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고, 매달 담당 한소연 매니저와의 밀착 상담을 통해 취업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들을 수 있던 점이 만족스러웠다.

"사실 혼자 취업 준비를 하면 막막하기도 하고 털어놓을 곳도 없잖아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가하는 동안 정해진 시간에 맞춰 프로그램을 듣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또래 청년들을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줬어요."

제가 겪었던 모든 도전과 실패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를 변화시킨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마무리될 때쯤 신동훈 사원에게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다. 바다 위에 띄울 배와 노의 모양을 구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리학을 전공한 신동훈 사원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인사 관리도 할 수 있는 직무를 원했다. 거듭되는 실패에 위축되기도 했지만, 담당 매니저의 코칭과 격려를 받으며 꾸준히 도전한 끝에 목표로 하던 직무를 얻는 데 성공했다.

"면접 때 팀장님께서 '동훈 씨 자기소개서를 보니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해 온 게 보이네요'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겪었던 모든 도전과 실패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신동훈 사원이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지원,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 사업 행정 업무 등이다. 입사 8개월 차 막내이기 때문에 아직은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선배들을 따라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 변화한 점은 또 있다. 퇴근 후 주짓수 학원에 등록해 스트레스를 풀며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긴 인생을 지치지 않고 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동훈 사원의 다음 도전이 기대된다.

"개인적인 바람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다음 목표인 결혼이라는 단계를 향해 가기 위해 준비할 예정이에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가하기 전에 저도 많이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함께 고민을 나누다 보니 다같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꼭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가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구직·구인 고민, 체계적으로 해소하자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취업을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구직자와,
인재 수급을 원하지만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있다. 구직자의 취업과 기업의 구인을
일대일로 지원하는 도약보장 패키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정리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인공지능 기반의 잡케어(Job Care) 서비스와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특성을 진단하고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다.
구직자의 직무역량 진단, 노동시장 정보 제공, 경력개발 로드맵 작성,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참여·자격증 취득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의 실행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대상

○ 심층상담을 통한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구직자 누구나
○ 미취업자, 진로 고민 청년, 경력보유 여성, 이·전직 희망 중장년, 직업훈련 참여자, 경력(준비·유지·전환) 고민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전담자에 의한 상담프로그램 참여 중인 사람은 제외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24(www.work24.go.kr)
○ 고용복지플러스센터(www.workplus.go.kr)

체계적인 취업지원 절차

1 구직자 역량 진단
- 역량 및 특성진단(적성·흥미)
- 교육(전공), 훈련
- 경력, 자격
- 직무역량(보유스킬)

2 노동시장 정보 분석
- 고용동향 및 직업 전망
- 일자리 수요 분석

AI 기반 잡케어시스템 활용 + 1:1 심층상담

3 경력개발 컨설팅
- 적합직무 추천
- 경력개발 설계 (훈련, 자격, 일경험)
- 경력개발 로드맵 제시

AI 기반 잡케어시스템 활용 + 1:1 심층상담

4 맞춤형 패키지 지원
- 개인별 맞춤 경력관리
- 직업훈련, 취업지원, 복지·금융 등 연계서비스 제공



직무역량진단

AI(인공지능) 기반의 잡케어(직무역량 진단시스템)을 활용해 개인별 전담 컨설턴트가 구직자의 직무역량을 진단하고 분석

노동시장 정보 분석

구직자의 희망 직무에 대한 지역별 구인구직배율, 훈련정보 등 노동시장 정보를 분석·제공해 적합직무 목표를 함께 탐색

심층경력설계

진단결과와 개인의 희망직종·임금·노동시장 정보 등을 통합해, 경력단계와 취업희망 분야 등을 고려한 경력개발 로드맵 설계 지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경력개발을 위한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지도, 취업지원, 직업훈련, 복지연계 등 고용센터 및 유관기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 지원사례: 20대 청년경력개발 지원

진단 및 맞춤서비스 제공

① 회계분야로 경력목표가 명확하나 계속되는 불합격으로 심리적 불안감이 높고 자신감이 낮은 청년 → 잡케어 직무특성분석, 심리안정지원, 경력강점 찾기, 취업활동분야 확대, 온라인 창업훈련제공 등을 통해 경리사무원 취업과 온라인 창업 모두 성공

② 공황장애로 면접이 두렵고 직업설계가 막막한 청년 → 모의면접, 온라인 재능활동지원 및 온라인 훈련지원, 생성형 AI 활용 정보탐색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장기 구직계획 수립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전담자가 기업진단과 컨설팅부터 기업지원 서비스 연계, 채용지원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업종별 구인난 현황, 지역별 고용동향 등을 고려한 기업의 구인 애로 요인 진단 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고용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 맞춤형 인재양성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집중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대상

구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누구나

○ **고용여건 개선형**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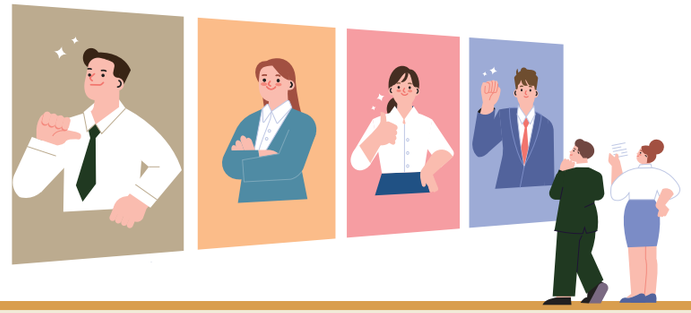
○ **근로환경 개선형**
시설, 작업기기 등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한 기업

○ **맞춤형 인재 양성**
실무형 인재 양성 등 다양한 훈련 연계가 필요한 기업

○ **인지도 확산형**
근로조건은 양호하나 인지도가 낮아 구인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24(www.work24.go.kr)
○ 고용복지플러스센터(www.workplus.go.kr)



기업을 위한 구인난 해소 지원 절차

1 기업 특성 진단
- 비전, 인재상
-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가)
- 복지수준(기숙사 등)
- 채용여건(기업 인지도, 인력확보 가능성 등)

2 노동시장 정보 분석
- 지역 경기 및 기업 체감도
- 산업 전망
- 일자리 수요 분석

기업별 전담자를 통한 1:1 밀착 상담



3 기업 맞춤형 컨설팅
- 적합 지원경로 추천
- 구인 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 솔루션 제시(① 고용여건 개선 ② 근로환경 개선 ③ 맞춤형 인재양성 ④ 인지도 확산 등)

4 기업지원 패키지 제공
- 인사·노무 컨설팅, 인프라 개선, 직업훈련 컨설팅, 기업홍보 등 기업지원사업 연계
- 집중 채용지원 서비스
- 개선현황 모니터링

기업별 전담자를 통한 1:1 밀착 상담

구인 애로 기업 발굴

지역의 산업 특성, 경기 변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인 애로 기업을 집중 발굴

기업 특성 진단·분석

고용센터별 전담자가 근로환경, 복지수준, 채용여건 등 기업의 특성을 진단하고 분석

노동시장 정보 분석

디지털 기업지도 등을 활용해 구인·구직 현황, 지역 경기, 산업전망 등을 분석·제공해 적합 지원경로를 함께 탐색

맞춤형 컨설팅 및 기업지원 서비스 패키지 제공

구인 애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기업지원 연계 서비스와 집중채용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

※ 지원사례: IT 전문 직종 인력부족으로 인재채용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맞춤진단·컨설팅

① 평가체계 및 장시간 근로 등 조직문화 개선으로 직원 만족도 제고 ② 직업훈련을 통한 근로자 역량강화
③ 채용지원금 등을 통한 채용지원

연계 서비스 지원

① 근로여건 개선 일터혁신 컨설팅과 연계해 '임금체계 및 장시간 근로, 평가체계' 등 개선
② 맞춤인재 양성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연계를 통해 사업주훈련, 일학습병행 등 기업 맞춤 훈련 컨설팅
③ 지원금 연계 기업 도약플러스 장려금(지자체 협업)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장려금 연계

재취업을 발판 삼아

더 밝은 '내일'을 설계하다





㈜사조오양 금산공장 생산팀 임춘호 사원

제2를 넘어 제3의 인생까지,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근로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채용 정보 수집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사조오양 금산공장 생산팀 임춘호 사원은 중장년내일센터의 구인구직 알선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후 희망적인 인생을 설계하는 중이다.

글 김주희 사진 김규남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만난 최적의 일자리

㈜사조오양(이하 사조오양)은 육가공제품과 어육제품 등 다양한 식품을 공급하는 종합식품기업이다.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금산공장에서는 맛살과 동그랑땡, 치킨너겟 등의 상품이 만들어진다. 생산직 190여 명 중 50대~60대 구성원이 약 60%를 차지할 만큼 중장년 구성원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업장이다. 생산팀 임춘호 사원은 지난 2022년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사조오양에 입사했다.

당시 사조오양 금산공장은 인력 충원을 위해 노사발전재단 충청지사 중장년내일센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지역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연결하는 행사로, 1:1 현장 면접을 지원한다. 취업 정보를 얻는 데 한계를 느끼던 임춘호 사원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희망하던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다.

"동네에 사조오양 통근버스가 오가는 모습을 자주 보곤 했거든요. 또 평소 사조오양 제품을 즐겨 먹던 터라 꼭 일하고 싶었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취업을 시도하는 건 막연하게만 느껴졌죠. 충원 계획이나 채용 정보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몰랐으니까요. 중장년내일센터가 알선한 기업이 사조오양이란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업명을 얘기한 적이 없는 데도 희망하는 분야와 매칭해서 사조오양을 연결해 준 거죠. 입사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매우 만족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자신감으로, 일하는 기쁨을 누리다

임춘호 사원은 냉장·냉동식품 파트에서 축선별 작업을 담당한다. 생산 공정 단계에 앞서 식품 원료인 닭고기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주 업무다. 이 밖에 완제품의 상자 포장 작업도 도맡고 있다. 특유의 꼼꼼함으로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며 일하는 기쁨을 누리는 중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진행하는 안전 및 위생교육에도 참여하며 책임감과 사명을 곱씹기도 한다.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업의 보람을 느끼는 일상이 더없이 소중하게 다가온다.

"구직과 재취업을 고민할 때는 걱정이 앞섰는데 지금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안정적인 직장의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과 적성을 활용하면서 경제적인 안정은 물론 성취감 그리고 정서적 만족감까지 누리는 임춘호 사원. 그녀는 성공적인 재취업을 계기로 더욱 밝은 미래를 그리고 있다.

"매일 아침 일터로 향하는 출근길이 즐거워요. 일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요. 중장년내일센터의 지원이 있었기에 미래를 더욱 선명하게 계획하게 되었어요. 나이를 떠나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재취업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중장년내일센터 지원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더 멋지게 설계하길 바랍니다."



미조직 근로자의 고민 해결을 위한 공간

대한민국의 근로자 1,870만여 명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로, 직장 내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전국 6개 권역에 신설한 근로자 이음센터는 미조직 근로자의 고민 해결과 소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공간이다.

글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도 소중하기에

직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부당한 일을 겪거나 고민이 생겨도 도움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전체 근로자 2,140만 8,000명 가운데 약 87%에 해당하는 1,868만 6,000여 명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정규직을 비롯해 비정규직,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 등의 미조직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내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29일 서울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 근로자 이음센터를 개소했다.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이음센터는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무료 상담과 상담 결과에 따른 고용·노동 서비스 연결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미조직 근로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도 기능하게 된다.

지역별 센터 인근의 주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서울센터는 IT 업종과 벤처·스타트업 종사자, 평택센터는 물류·자동차 부품 종사자, 청주센터는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 종사자들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서울·평택·청주센터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운영하며, 향후 성과를 확인한 후 타지역 센터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자 이음센터를 시작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해 미조직 근로자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자 이음센터 주요 기능

상담 (무료)
- 노동법률 상담
- 산업단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 노동법 교육

지원
- 상담 결과에 따른 고용·노동 서비스 연결
  - 취업알선, 직업훈련 → 고용센터
  - 심리 치료 → 직업트라우마센터
  - 임금체불 등 사건 접수 희망 → 노동지청

소통
- 소모임 공간 제공
- 정책제안 등 의견수렴
- 서울·평택·청주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

전국 근로자 이음센터 현황

대표번호 1668-1007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
- 평일 10~20시, 토요일 09~17시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1로 131, C동 125호
- 02-3488-1951~2
- IT 업종 벤처, 스타트업 근로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광주 근로자 이음센터
- 평일 09~18시
- 광주 북구 금남로 121, 5층
- 062-609-8600~1



대구 근로자 이음센터
- 평일 09~18시
- 대구 서구 서대구로 9, 3층
- 053-605-6424~5

평택 근로자 이음센터
- 평일 10~20시, 토요일 09~17시
-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102호
- 031-668-9308~9
- 자동차 부품, 물류 산업 근로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청주 근로자 이음센터
- 평일 10~20시, 토요일 09~17시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109호
- 043-272-9097~8
- 반도체, 바이오산업 근로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부산 근로자 이음센터
- 평일 09~18시
-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00, 8층
- 051-520-4988~9



미래의 핵심 능력, 인공지능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다

이경전 인공지능 전문가

인간의 창의성과 감각이 인공지능(AI)과 결합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 인간과 AI의 융합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아가려면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경전 인공지능 전문가·경희대학교 교수를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

글 한율 **사진** 고인순

Q 교수님께서는 세계인공지능학회의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네 차례 수상하시는 등 AI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교수님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빅데이터응용학과·첨단기술비즈니스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AI를 연구하기 시작한 건 36년 전인 1988년, 대학교 2학년 학생일 때입니다. 그간 AI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요. AI를 산업이나 비즈니스, 정책 분야에 응용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Q 챗GPT의 등장으로 AI 산업에 큰 변혁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사회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챗GPT는 우리가 네이버, 구글, 카카오톡을 쓰듯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AI가 저와 같은 연구자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일반 사용자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즉 이제는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공평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챗GPT로 인해 개인 및 기업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점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1시간 또는 하루 이상 걸려서 하던 일들 중에서 챗GPT를 활용하면 1~2분 이내로 가능한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Q 강의나 연구에도 챗GPT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강의나 연구에 챗GPT 활용을 많이 합니다. 가령 제가 강의했던 주제를 하나로 합쳐서 한 과목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 과목명이 뭐가 좋을까 물었더니 챗GPT가 대안을 제시해 줬고, 16주 차 강의 계획서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챗GPT가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쓰지는 않지만, 좋은 템플릿은 되겠죠. 챗GPT를 통해 학생들의 성적을 내기도 합니다.

Q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AI 자체를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인간의 의도를 더 집어넣어 완성도를 높이는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AI 활용에 있어서는 프롬프트에 관한 내용을 빠뜨릴 수 없는데요. 프롬프트는 AI가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자가 제공하는 지시 또는 질문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의도나 요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AI가 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 즉 프롬프트가 이제는 노하우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Q 인공지능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한다면 크게 AI를 직접 만드는 직업과 활용하는 직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AI를 만드는 것은 매우 극소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AI를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AI가 이공계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이공계 신규 채용은 줄고 있는 반면 '생성 AI'라는 용어가 들어간 직업, 즉 생성 AI를 활용하는 직업은 늘고 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AI를 훌륭한 도구로 활용하면서 각자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본 상식

인공지능 전문가 관련 전공

컴퓨터공학, 정보공학, 정보시스템, 정보처리와 관련한 분야를 전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꼭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수학, 수리 논리학, 기초과학, 심리학, 신경생리학 등의 전공자도 AI와 관련된 기초 분야를 연구하기 때문에 관련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인공지능 전문가 직업 종류

인공지능 전문가는 정보 통신 기술(ICT)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설계 및 프로그램의 직업과 관련성이 높다. 응응 프로그램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시스템 개발자, 웹 디자이너, 컴퓨터 게임 디자이너 등이 있으며 로봇 설계뿐 아니라 게임, 재생에너지, 검색엔진, 빅데이터, 영상 및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하다.





각자의 분야에서 AI를 훌륭한 도구로 활용하면서 각자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AI를 깊이 이해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시대에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AI를 익숙하게 다루려면 그만큼 인간이 똑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AI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인턴 생활 시작!

2017년 한 논문에 따르면 청년들은 인성 및 태도를 제외한 외부 경험의 요소로서 가장 필요한 취업 역량으로 '업무 관련 경력'을 꼽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인턴십을 희망하지만 한정된 공급으로 인해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잡월드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메타버스 인턴십 프로그램 '인턴IN메타'를 기획하였습니다.

글 장서연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16기 **참고** 고용노동부

인턴IN메타, 청년층의 실무 경험을 지원하다

'인턴IN메타'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무에 대해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인턴십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영기획, 해외영업, 광고·홍보 마케팅, 여행상품개발, 소프트웨어개발 등 5종의 가상 회사에 입사하여 약 2개월간 인턴 생활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직종별 SME(내용전문가) 그룹과도 협업하면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총 160시간의 인턴 생활을 거치는 것은 동일하나, 각 직무별로 지식/경험, 개별과업/팀과업에 대한 시간은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직무 특화 역량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도 면접 및 요건 없이 희망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턴 경력을 쌓고자 하는 19세~34세 청년들에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2주간 인턴 접수를 진행했는데요. 8주간 총 160시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설계된 커리큘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메타버스와 인턴, 어떤 요소가 매력적일까?

우선 메타버스에서 온라인 인턴 과정을 체험하여 수행해본 결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인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우 인턴생활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더 한정적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메타버스 인턴은 그러한 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이기에 과업을 실행하면서 다양한 매체의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온라인 과업을 수행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내에 본인을 대신할 아바타성 캐릭터를 직접 만들고, 실제 회사 모양 그대로 메타버스에 옮겨두어 출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인턴IN메타, 앞으로의 방향성은?

인턴IN메타의 첫 번째 장점은 단순히 진로 코칭, 자기소개서 첨삭 등의 프로그램이 아닌, 유관 분야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인턴 체험 프로그램인 점입니다. 취업 프로그램 중 가장 취업 준비생들의 수요가 높은 '실무형 프로그램'인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두 번째 장점은 최근 기업에서도 점진적으로 도입 중인 '메타버스'를 결부한 신선한 인턴 프로그램이라는 점입니다. SK텔레콤의 이프랜드(ifland), 네이버의 제페토 등 여러 대기업에서 회사의 사업에 메타버스를 도입하고 있기에,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훗날 취업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잡월드 및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관하는 '인턴IN메타'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점과 우려되는 점 모두 존재하지만, 앞으로 더욱 늘어날 메타버스 및 AI, 비대면 분야 등을 취업 준비생들의 수요 높은 인턴십 프로그램과 접목한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취업 준비생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른바 '스펙'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옥, 문화가 되다

서울 종로구 익선동



한옥이 즐비한 좁은 골목길은
발 디딜 틈이 없다. 줄을 서는 게 일상이 된
거리지만 사람들에게는 이조차도 익숙하다.
그리고 걷는다. 정해진 목적지는 없지만
골목골목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여기에서의 시간은 아쉬움이 없기 때문이다.
이 모든 풍경은 어쩌면 익선동이 만든
문화가 아닐는지.

글 김민영 **사진** 정우철

소외된 마을이었던 익선동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2024년 지금의 익선동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난 동네이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익선동이 서울 사대문 안에서도 외딴섬처럼 남아있던 소외된 한옥마을이었다면, 믿어지겠는가.

약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옥밀집 지역이었던 익선동을 이야기하려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다. 1920년대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정세권 선생은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을 반대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일을 했다. 그 당시 일본인이 익선동을 비롯한 서울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정세권 선생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1만 평에 가까운 익선동 땅을 작게 나누어 작은 한옥들을 지었고 조선인들에게 분양을 시작했다. 그것이 지금 좁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익선동 한옥마을의 시작이었다.



‘익선스러움’을 만들다



해방 이후 현대식 건축이 들어서고, 자본주의가 몰려오면서 익선동의 재개발 이슈도 떠올랐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의 한옥을 모두 헐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지만, 무산되고 만다. 그렇게 익선동은 1920년대의 느낌을 간직한 채로 서울 도심에 남아있게 되었다.

2014년, 익선동에 매력을 느낀 크리에이티브 기업 익선다다는 익선동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번화한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익선동의 포근함과 옛 모습을 그대로 계속 지켜나가고 싶었던 것이다. 거기에 새로움을 입혀 익선동만의 새로운 아날로그를 담고자 했다.

익선동이 품은 시간에 주목했고 그 시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익선’스러운 콘텐츠를 동네에 담아내고자 했다. 먹거리, 볼거리, 들을 거리, 느낄 거리 4가지 카테고리를 나누어 개별숍을 기획했고, 이야기가 있는 브랜드들을 만들었다.

익선동이 단순히 어떤 공간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익선동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추억을 공유하는 문화생활을 누리기를 바랐던 것이다.











익선동, 트렌드를 담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익선다다를 시작으로 젊은 소상공인들이 익선동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옥을 개조한 카페, 음식점, 소품숍, 빵가게 등이 줄을 지어 오픈했고, 몇몇 가게들이 SNS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익선동으로 향했다.

익선동의 인기가 상승세를 탄 것은 2010년대 후반부터다. 이른바 뉴트로(New+retro) 트렌드가 문화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익선동은 뉴트로 중심 그 자체가 된 것이다. 실제로 익선동에는 한옥을 그대로 살려 개조한 다양한 숍들이 대부분인데, 그 안에 요즘 핫한 아이템과 먹거리 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신선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북촌한옥마을, 서촌한옥마을이 고궁과 연결되어 고풍스러운 분위기라면 익선동 한옥마을은 개화기 경성의 모습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다. 요즘은 대기업들이 다양한 팝업스토어를 열며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지금의 익선동에는 지금 유행하는 모든 것이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너무 상업화된 모습에 누군가는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하지만, 사라질 뻔한 동네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동네로 바뀌었으니 결코 아쉬움으로만 남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 모든 풍경을 익선동의 문화라고 받아들인다면 익선동은 더 다채로운 모습과 볼거리로 오래도록 사람들 곁에 머무를 수 있지 않을까. 한옥을 품고 새로움을 만들어 가는 익선동의 내일을 응원한다.

2024년에는 어떤 화두와 트렌드가 펼쳐지고 있을까? 트렌드의 흐름은 아는 만큼 보인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 트렌드를 파악하는 눈을 길러보자. 분초를 다투는 속도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 디토소비를 소개한다.

글 정재림 **참고**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트렌드 코리아 2024》, 미래의 창

You Choose, I'll Follow
나도 따라 살게!

디토소비



소비, '시간의 가성비'를 따지다

'디토(Ditto)'는 '나도'라는 뜻이다. 디토소비는 무언가를 구매할 때 의사결정에 따르는 복잡한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 커머스를 추종해 '나도' 따라 구매하는 소비 현상을 말한다. 얼핏 들으면 유행을 좇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지만, 디토소비는 오히려 유행을 떠나 각기 다른 취향에 따라 뿔뿔이 흩어진다.

디토소비자들은 자신과 취향, 가치관이 비슷한 연예인, 인플루언서, 브랜드 직원, 일반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이들을 팔로우하고 그들이 추천하는 상품에 구매 버튼을 누른다. 사람이 아닌 콘텐츠를 대상으로도 디토소비가 이어진다. 좋아하는 웹툰, 영화, 드라마 등의 캐릭터의 스타일을 참고해 옷과 액세서리를 사거나, 미디어에 등장해 눈에 익은 촬영지를 여행지로 선택하는 것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소비를 단순히 '유명인 따라하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디토소비가 단순한 추종과 다른 점은 소비자가 직접 수행해야 했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일종의 대리체에 맡긴 뒤 자신의 취향과 관점에 부합하는 상품을 '디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추종이 구매 과정의 시간을 대폭 줄였다.



브랜드의 철학을 보여줘!

디토소비가 등장한 배경은 이러하다. 상품 종류와 유통 채널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자 소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다. 상품을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인도 바뀌었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은 물론이고 개인의 취향, 동물 복지, 정치적 올바름 같은 브랜드의 철학까지 고려할 사항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구매를 연기하게 됐다. 복잡한 소비 환경 탓에 소비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늘어난 까닭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소비자들이 '디토' 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와 디토소비자들의 소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기존처럼 단순히 제품의 질이나 특성 등을 홍보하는 마케팅 방식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철학과 관점, 취향이 담긴 '시그니처' 상품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해졌다. 브랜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우리 브랜드의 철학이 무엇인가?"가 디토소비를 이끌어낼 해답이 된 것이다.

반대로 디토소비자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맹목적인 '따라하기'와 디토소비를 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다.

디토소비 사례



텀블러
지난해 미국의 한 여성이 불에 전소된 자동차 안에서 얼음도 녹지 않고 멀쩡하게 발견된 텀블러를 찍은 영상을 틱톡에 올려 화제가 됐다. 이후 해당 브랜드의 텀블러는 큰 관심을 받으며 미국 10대들의 인기 선물로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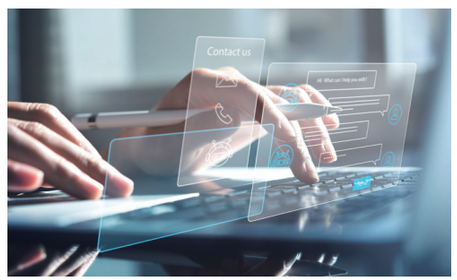


김밥
미국 유명 인플루언서가 한국산 냉동 김밥을 먹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미국 전역의 대형마트에 납품된 냉동 김밥 250톤이 품절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자 국내 유통사에서 이 냉동 김밥을 역수입해 판매하기도 했다.



여행
글로벌 여행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여행지 결정에 SNS보다 영화, 드라마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로 <오징어 게임> 방영 이후 구글 검색 트렌드에 한국행 항공권 검색량이 대폭 증가했고, 실제 한국 방문으로도 이어졌다.

01
노동분야 민원 온라인 서비스 확대



이제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에서 온라인·모바일로 노동 분야 민원을 신청하고 노동관계법령상 각종 인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30일 노동포털 누리집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38종에 대한 신청·조회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총 99종의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민원 신청부터 진행 과정 조회 및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 지정서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지정기관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9개 노동 분야 신고센터를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통합함에 따라 노동포털 누리집이 노동 분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로 기능하게 됐다.

02
전국 6개 권역에 근로자 이음센터 개소



근로자 이음센터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부산·평택·청주·광주 등 전국 6개 권역에 개소됐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결 지원, 소통 등을 통해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다.

지난 4월 29일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개최된 개소식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구로디지털산업단지 내 미조직 근로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 이음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해 분쟁조정 지원, 일하는 여건 및 처우개선, 이해대변과 소통 활성화 등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03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고용노동부가 5월 1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총 400개소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접수된 사례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취업포털 구인광고 4천 건을 모니터링해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 제재조항 및 권고조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공정한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04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실시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을 직접 찾아 체류 관리를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방노동관서(외국인팀)와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인사·노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현장 컨설팅에서는 고용허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법령 및 제도 안내, 임금 등 근로조건,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등을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언어(통역)소통·사업장 갈등(애로) 해소 등 안정적 체류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현장 컨설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은 전국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 외국인팀)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05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 위한 집중 안전관리



고용노동부는 위험한 작업·공정이 많고 수많은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조선업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했다.

올해 '조선업 안전보건리더회의'(4.22.) 개최, 조선소 감독·점검, '강선 건조업 안전보건가이드 배포'(5.13.),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건조업 '긴급 자체점검' 실시(5.14.~, 3,200여개소) 등 조선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온 데 이어 조선사가 밀집돼 있는 부산·경남지역(5.21.), 광주·전라지역(5.23.)에서 '중소 조선사 사업주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조선업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지도·점검을 위해 제10차 현장점검의 날(5.22.)은 조선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조선업 현장에서 다수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집중점검했다.

06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5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응모작품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출산·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와 다양한 유연근무 활용 사례를 발굴·공유해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근로자, 기업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육아지원제도 또는 유연근무를 활용·시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또는 기업 담당자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총 22점을 선정하며 대상·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마이크로사이트(http://www.일가정양립.com)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상작은 7월 11일에 발표한다.

07
여름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무더위가 지속되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업종,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08
2023년 장애인 고용률 3.17% 지속 상승



고용노동부는 5월 23일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평균 3.17%, 공공은 3.86%, 민간은 2.99%로, 10년간 추이를 볼 때 장애인 고용률 및 규모가 지속 상승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민간보다 높았다. 자치단체는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부문(공공부문 중 공공기관 제외)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6%, 6.14%,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9%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1,000인 이상 민간기업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1%p 상승해 전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대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이와 비례한다.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먹거리 품목들이 풍성하게 늘어난 지금,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숙제가 생겼다.
유기농, 친환경, 무농약… 얼핏 비슷해 보이나 미묘하게 다른 이 먹거리들을 명확히 구분 짓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인 세상, 보다 꼼꼼히 우리의 장바구니를 들여다보자.**

글 이경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싶은 몇 가지 것들



친환경 농산물은 비싼 값을 한다?

일반 농산물에 비해 친환경 제품들은 꽤 비싸다. 그러나 생협, 자연마을, 올가 등 친환경 먹거리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일반 매장보다 다소 비싼 가격을 책정함에도 사람들이 기꺼이 장바구니에 담는 이유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다.

문제는 의외로 소비자들이 유기농, 친환경 먹거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일반 제품과의 차이를 묻는다면 대부분이 "농약을 안 쓰는 거 아닌가요?"라고 답할 확률이 높다.

친환경 제품들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서도 막연히 더 좋을 것이라는 믿음만 굳건할 뿐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다.

먼저 친환경 제품들이 정말 우리 몸에 좋은 것인지 알아보자. 당연하게도 이 특별한 먹거리들은 일반 먹거리들과 영양학적 차이가 분명히 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키, 몸무게, 영양상태, 면역력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것과 비슷하다.

친환경·유기농 작물은 일반 작물과 비교해 더 많은 영양소를 보유하고 있다. 화학비료나 농약을 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작물들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더 많은 영양소를 응축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물질을 함유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항생제나 호르몬의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식품 자체의 안전성을 높여주며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쌓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건강이 나빠지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첨가물이 들어간 인스턴트 음식들을 제한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알고 먹으면 더 좋다

그렇다면 유기농, 친환경, 무농약 등으로 분류되는 먹거리들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 것일까?

먼저 유기농(Organic)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비 같은 천연비료를 이용해 3년 이상 재배한 농산물을 말한다. 유기농이라는 상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엄격한 관리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부착할 수 있으며 가장 엄격한 단계의 먹거리라고 보면 된다. 무농약(Non-Pesticide)은 말 그대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대신 화학비료는 사용이 가능한데 추천 시비량의 1/3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이 재배한 농산물에는 '무농약' 상표가 붙으며 역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친환경(Eco-Friendly)은 광의의 개념이다. 유기농과 무농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건강한 토양에서 환경친화적 농법을 통해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 항생제, 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해도 최소화해서 생산한다. 간혹 무공해, 저공해 같은 표시가 보이는 것은 사용이 금지된 표기법이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다. 농약을 덜 쓰거나 안 쓰면서 농작물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안 다면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먹는 것이야말로 지난한 시간을 공들여 온 농부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상담 전문가

타인의 마음을 돌봐주고 싶다면



최근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상담전문가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상담전문가에 관심이 있다면 나와 어떤 성향이 맞는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정리 편집실 **참고** 책 「MBTI 진로탐색」 외 다수

ISFP의 특징

#화합 추구 # 예술가 기질 #섬세함

"따뜻하고 다정하며 배려심이 깊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창의력이 넘쳐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ISFP형은 모험가형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열정이 있다. 모험가적인 성향으로 엄격한 일정과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어떤 일을 대할 때 유연한 사고방식과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친절하고 다정한 성격이라 공감과 통찰 능력이 뛰어나며, 타인의 감정에도 민감해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준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때 행복감을 느낀다. 동시에 내향적인 성격이라 혼자 있는 시간도 충분히 필요하며,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한다.

I 나의 에너지 방향은?

외향형 E	내향형 I ✓
•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길 원해요. • 사교적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요.	•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기를 원해요. • 깊이 생각하고 혼자만의 생각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요.

S 나의 인식 기능은?

감각형 S ✓	직관형 N
• 실제의 경험, 현재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요. •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직접 관찰한 정보를 신뢰해요.	• 영감, 아이디어, 의미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요. •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직감을 신뢰해요.

F 나의 사고 성향은?

사고형 T	감정형 F ✓
•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하길 원해요. • 일관성, 공정성, 진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 가치관, 공감, 타인의 감정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요. • 조화, 공감,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P 나의 의사 결정은?

판단형 J	인식형 P ✓
• 계획해서 결정을 내리고, 일정을 따르는 것을 좋아해요. • 명확성, 예측 가능성, 안정성을 중시해요.	• 새로운 정보에 적응하고 선택권을 열어두는 것을 선호해요. • 유연성, 자발성, 개방성을 중시해요.

나에게 맞는 직업일까?

※ 과정평가형자격 살펴보기 한국산업인력공단 씨큐넷(cq-net.or.kr)

상담전문가의 성향

판단력	내담자가 돌발 행동을 할 때 잘 대처하고 싶다.	통찰력	문제 원인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싶다.
인내심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잘 헤아리고 싶다.	지적 추구	생물·신경과학·통계학 등의 공부에 관심이 있다.
공감 능력	내담자가 충분한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자기 통제	타인의 고충을 들을 때 오는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다.

하는 일	• 정신적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상담한다. •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내담자의 심리를 분석한다.
관련 학과	심리학과, 아동복지과, 사회복지과, 교육학과
관련 자격증	• 학교·대학·기업 상담실, 병의원, 상담센터 • 정신과의사, 상담교사, 범죄심리분석관, 놀이치료사

챗 GPT가 살펴본 직업 전망

상담전문가의 직업 전망은 매우 밝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족 내 문제, 직장 스트레스, 대인관계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상담 플랫폼이 더욱 보편화되면서 상담전문가들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상담 플랫폼은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따라서 상담전문가로서의 직업 전망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전문성과 품질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전문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상담전문가는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이 있는 내담자와의 대화 또는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통해 내담자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탐색해 결과를 분석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내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상담전문가가 되려면?

이용안내

- **자격증 취득 후 관련 기관 취업**
  - **국가자격증** 임상심리사(1, 2급), 청소년상담사(1, 2, 3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 **민간자격증**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등
- **심리 관련 학과 전공 및 교직 이수 시 전문상담교사로 근무 가능**

글·그림 여혜리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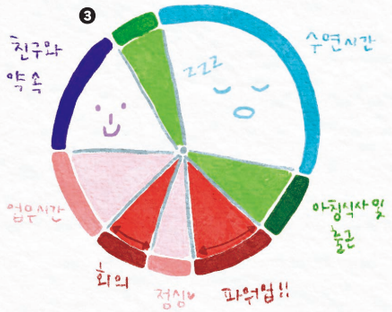
오늘의 리듬만들기



아침에 눈떠서 산뜻하고 효율적인 하루를 만드는
간단한 방법. 알려 드릴까요?



먼저, 오늘 하루 스케줄을 파악해 봅니다.



중요한 일과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나눠봐요.



오늘 하루 에너지를 쏟아야 할 시간과
힘을 뺄 수 있는 마음 편안한 시간대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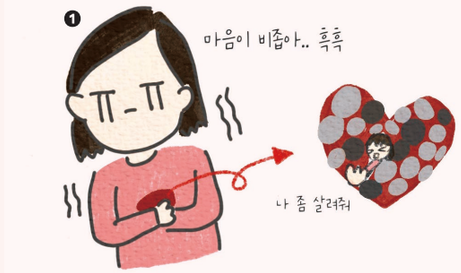
이 시간을 잘 구분해서 쓰면 더 집중할 수 있고
균형 잡힌 나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답니다.

즐기는 사람이 되고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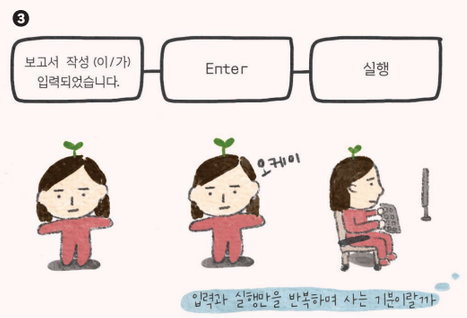




문득 느낀 게 있다.



마음의 여유가 없단 걸 스스로 느끼던 날이 지속되다가



나는 내 삶의 과정을 즐기고 있지 않다는 것 !!!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단순 입력과 실행을 반복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걸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진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과정을 즐기는 순간이란 걸 종종 되새기자구!

「월간내일」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월간내일」 2024년 6월호를 읽고 퀴즈에 응모해 보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QUIZ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및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맞춤형 구직·구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Tip) <고용 아카이브> 코너

Hint!

구직자·기업 ㄷㅇㅂㅈ 패키지

미조직 근로자의 상담 및 지원,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전국 6개 권역에 설립된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Tip) <일터애(愛)서> 코너

Hint!

근로자 ㅇㅇㅅㄷ

참여방법 I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 참여기간
2024년 6월 14일(금)까지
※ 당첨자에겐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5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6548	2661	1471	1085
8063	0929	0937	9907
5237	8489		

「월간내일」 독자 라운지

이번 「월간내일」 잘 읽어 보셨나요? 이번호를 읽으며
가장 좋았던 내용은 무엇이며,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더욱 알찬 「월간내일」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❶ 이번 「월간내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❷ 이번 「월간내일」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❸ 앞으로 「월간내일」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참여방법 I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참여기간 2024년 6월 20일(목)까지
※ 당첨자에겐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월간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❶ 「월간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❷ **[QUICK MENU]**를 클릭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❸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